

담당자:
Shauna Schuda
수석 미디어 관련 스페셜리스트
630-468-7075
Shauna.Schuda@LionsClubs.org

즉시 배포

브리즈번의 8 학년생 조슈아 우드(Joshua Wood),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 대상 수상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호주 브리즈번 출신의 13 세 소년 조슈아 우드는
평화가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 조슈아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감동적인 수필로 표현하여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훌륭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의 놀라운
목소리를 한층 높여줍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겸손한 자세로 봉사함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최중열 국제회장은 말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국제 수필 경연 대회는 전 세계 라이온스 클럽에게 있어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라이온들은 프로그램 참여와 수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현지 학교 및 가정과 협력한다.

“저는 희귀 망막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점자를 사용해서 글을 읽습니다.
저에게는 장애가 있지만 여전히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조슈아는 말했다.

수상작의 제목은 ‘평화와 봉사는 함께 나아간다’이며 경연 대회 주제인 ‘봉사를 통한 평화’에 대해 뛰어난 독창성, 구성력, 묘사를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브리즈번 캠프 힐 카린데일 라이온스 클럽은 현지 경연 대회를 후원하여 이 8 학년 학생이 세계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사했다.

“브리즈번 캠프 힐 카린데일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한 조슈아 우드의 성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슈아는 대회 참가 의지와 수상에 대한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지지가 대단했습니다.”라고 클럽 회장인 빌 달 라이온은 전했습니다.

수필에서 조슈아는 할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서술하며 평화에 대한 생각을 묘사했다. 조슈아는 자신의 수필을 통해 다른 이들이 어떤 장애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슈아가 말하길, “평화 수필이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자신을 생각하는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많은 문제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내심과 친절,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연 대회 수상자 조슈아에게는 상금 US\$5,000 이 수여되며, 우드의 수상작 및 평화 수필 경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회 웹사이트(lionsclubs.org/peace-ess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40 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다. 라이온스는 평화 수필 경연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평화 및 국제이해 증진에 대한 정신을 심어 주고 있다.

‘평화와 봉사는 함께 나아간다’
글쓴이: 조슈아 우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이었고, 흰머리가 할아버지의 지혜를 돋보이게 했다. 할아버지의 손은 특히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는 아이에게 더 건조하고 거칠게 느껴졌다.

몇 년 후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건조하고 거친 손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잡고 안내해 주던 손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바쳐 전쟁에 나간 젊은이의 손이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붙잡던 이의 손이었다. 지역 노인들을 위해 잔디를 깎던 이의 손이었다. 봉사에 대한 표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메달을 수상했지만 목에 걸지 않던 이의 손이었다. 봉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의 손이었다.

할아버지는 수년 전 지역사회의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기 위한 봉사의 중요성과 그 공헌에 대해 나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셨다. 나는 종종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전쟁, 싸움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내게 “너는 시각 장애가 있지만, 통찰력이 있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는 앞서 봉사해 온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테레사 수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친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영감을 받은 인물은 헬렌 켈러 여사다. 그녀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참전 용사들을 도왔고 자선단체를 설립했으며 시각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옹호하고 40 년 이상 미국 시각장애인 재단을 이끌었다. 이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상처 입고 굶주린 빈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봉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뿐"이라는 명언은 나에게 큰 감동을 일으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는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나는 할아버지와 약속했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나는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다른 이들이 봉사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나의 삶에 평화의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싶다. 평화와 봉사는 오래전 할아버지와 내가 손잡고 함께 걸었던 것처럼 함께 나아간다.